

# 선조의 숨결 문화유산 우리가 지킨다

### 정읍시, 보수와 정비 31억원 투입 원형 유지에 힘써... 시민들 참여 의식도 높아나가기로

정읍시가 지역문화재의 보전·정수를 위해 올해도 문화재 보수와 정비에 주력한다.

시는 "주요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문화유적을 찾은 탐방객들이 쾌적한 관람환경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체험하고 선인들의 숨결을 배울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와 정비에 3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적 제166호인 무성서원 강수재 보수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에 20억원, 장충사지 보수 등 전북도 지정문화재 11개소에 11억원을 투입해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문화재 관리단을 상시 운영, 문화재에 대한 상시 순찰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펼치는 한편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전개해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대의 관광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유형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테마형 관광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꼼꼼한 문화재 보수정비와 환경정비를 통해 보다 많은 체험관광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에는 국보 1건, 보물 8건, 사적 4건, 천연기념물 2건, 중요민속문화재 1건 등 국가지정문화재 16건과 도지정문화재 63건, 등록문화재 8건, 전통사찰 10건과 향토문화유산 5건 등 모두 102건의 지정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충·효·열비 등 수많은 비지정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고장이다.'며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정문화재의 지붕을 수리하는 기술자들

## 콘텐츠진흥원 '게임 잡페어' 17일 개최

### 게임분야 청년 취업 활성화 도모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게임분야 청년 취업 활성화와 중소 게임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게임 잡페어'를 오는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 제1센터 10층 콘퍼런스 룸에서 개최한다.

게임기업과 취업지원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취업 컨설팅 및 모의면접 ▲

현업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클리닉을 받는 '코칭데이' ▲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는 잡매칭 ▲현업인이 들려주는 취업특강 등 모두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잡매칭' 프로그램에는 라인플러스, 스마일게이트, 그라비티를 비롯해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입주기업 및 중소 게임기업 7곳 등 총 10개의 국내 우수 게임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취업특강'에서는 넥슨 강민혁 이사, ㈜오리진스튜디오 강귀복 대표, 한국게임개발자연협회 윤준희 협회장이 연사로 나서 게임업계 현황과 문화, 개발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등 게임 업계 구직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강연을 펼친다.

또한 '코칭데이' 프로그램에도 현업 TA(Technical Artist) 및 게임의 개념아트

## 취업청 정월대보름 신명나게 돌아보자

### 군산문화원 풍물 한마당 개최

병신년 군산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풍물 한마당이 개최된다.

군산문화원(원장 이진원)과 진포문화예술회관(원장 박양기) 주최·주관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00분 근대역사박물관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인 길놀이와 허수아비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부 개막식을 진행하고 2부 대보름행사로 민속놀이, 국악합창단 시민노래제, 민속놀이 경연, 풍물판굿 공연, 달집태우기 등 순서로 다양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정월대보름은 1년의 첫 보름날로서 가장 밝고 빛나는 날이라 하여 한해풍년 농사의 풍흉, 신수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재가기 소원을 비는 우리민족이 가장 중요시했던 세시행사의 하나이다.

또한 찰밥을 많이 먹으수록 좋다고 여겨 대보름날 나무 아홉 집과 찰밥 아홉 그릇 먹는다 는 말이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귀밝이술은 새벽에 찰밥을 먹은 뒤 맑은 술을 마시는데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먹게 하면 귀가 밝아지고 눈이 잘 보인다고 믿는 풍속이다.

이와 함께 군산문화원은 군산지역의 모든 액을 몰아내고 풍년과 풍어를 바라는 병신년 중동당산제를 오는 19일 오전 11시 중동경로당 옥상에서 개최한다. /군산=문정근기자

## 남원, 지구촌 조각문화와의 조우

### 17세기부터의 다양한 국가들 조각품 전시

남원시 향토박물관에서는 2016년 새해를 맞아 2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6주간 지구촌 민속 유물전(조각품)을 개최한다. 남원, 지구촌 조각 문화를 만나다란 주제로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지구촌 민속유물 중 조각품 49점과 조각품 패널 12점 등을 전시한다.

전시품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대륙의 다양한 국가들의 유물들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각종 형태의 유물들로 이뤄져 남원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향토박물관으로 이관을 받은 지구촌민속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품들 중 가치와 보존성이 높은 자료들을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다. 전시품들은 배타는 원주민상, 목재 민속탈, 여인상, 마우리족 의자 등으로 각 나라들의 민속 생활과 조각 예술품 등을 통하여 그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향토박물관은 작년 총 9회 정도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13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였다. 앞으로도 박물관은 주제가 있는 특별전, 교체 유물전, 기증 유물전, 교류전 등 다양한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영감이 샘솟는 광주 靑문화전당

### 가변형 극장 무대시스템 시연회 참석자들 감탄

"새로운 시도의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네요." 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이곳에 모인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공연단체 관계자 50여명 앞에서 문화전당이 준비한 '가변형 극장 무대시스템 시연회'가 펼쳐졌다.

무대 바닥이 열리며 피아니스트 홍지수씨가 등장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며 시연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무대는 47개의 장치걸이(배튼·무대 세트틀 매다는 마대)의 퍼포먼스로 채워졌다. 화려한 음악, 조명과 춤을 추듯 어우러진 퍼포먼스는 최첨단 기술과 접목된 극장이 얼마나 다양하고 신선한 무대를 연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시연회를 본 공연 관계자들은 대체로 "새로운 영감을 불러내는 극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변형 실험극장'으로 불리는 극장은 이동식 의자 120석을 갖춘 박스형 극장이지만 가벽을 세워 최대 3개의 공간으로 분할해 하나의 극장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연이 가능하다.

극장 뒤편의 유리벽인 이른바 '빅도어'를 열면 야외 공연장으로 연결되며 객석은 1800석까지 늘어난다.

이동식 의자를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적인 극장형 무대부터 마당극·마당놀이 등 오르막, 런치쇼나 패션쇼와 같은 무대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조선대 무용학과 임지영 교수는 "무대세트를 설치하는 장치걸이(배튼)가 그 자체로 하나의 환상적인 무대장치와 작품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보고 감탄했다"며 "기존의 극장과 다른 새로운 무대와 기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진수 기자

## 5·18 증인 故힌츠펠터씨 취재행적 영화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전 세계에 처음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펠터씨(사진)의 5월 광주 취재 행적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80년 5월 항쟁 당시 힌츠펠터씨를 태우고 서울에서 광주로 왔던 택시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5·18 영화 '택시 운전사(Taxi Driver)'가 제작 중이다.

영화는 독일 제 공영방송의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힌츠펠터씨가 신군부가 저지른 학살의 현장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취재·보도한 '광주에서의 사흘'을 기본 줄거리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힌츠펠터씨를 서울에서 태워 광주에 배려해주면서 우연히 항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택시기사가 본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담아낼 것으로 전

해졌다. 제작진은 힌츠펠터씨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송진호 언론상을 수상할 당시 수상 소감에서 영감을 얻었다.

당시 힌츠펠터씨는 "80년 5월(서울에서) 광주까지 나를 태워주고 안내해 준 용감한 택시기사에게 감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작진은 힌츠펠터씨가 무병 끝에 숨을 거두기 전인 지난해 12월 인터뷰를 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은 최근 독일 현지에서 진행된 힌츠펠터씨의 장례식에도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지인들을 인터뷰했다. /인진수 기자



이 자리에서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관계자들을 만나 영화의 줄거리와 제작 배경, 주요 배역 등을 설명한 뒤 자료 제공과 제작 협조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오는 5월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다"며 "옛 금남로를 영화 세트 로 부활시키기 위해 재단과 광주시가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의 일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를 통해 5·18의 진실과 가치가 다시 한 번 조명되고 국민이 5·18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 36주년 5·18기념행사 때 힌츠펠터씨의 유가족을 초청, 고인의 머리 카락과 손톱이 든 봉투를 망월동 옛 묘역에 안치할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2월 15일)

**▷쥐띠**  
4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계약을 하거나 서류정리를 하라.  
80년생: 일적으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좋은 운.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운.  
84년생: 자신의 일에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

**▷소띠**  
49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구하는 것이 좋다.  
6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라.  
79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질 수 있다.  
85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니 타인에게 조언을 구해도 큰 도움이 된다.

**▷호랑이띠**  
50년생: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 동성이 이 년 이상으로 증가 사후 구별하라.  
62년생: 판단오류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운이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86년생: 금전운이 안 좋으니 투자는 피하라.

**▷토끼띠**  
51년생: 작은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이니 마음의 평안을 집중하고 불귀귀를 찾아라.  
63년생: 놀람 일이 발생하니 원광은 살피라.  
75년생: 감기와 같은 기관지 계통의 질병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87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용띠**  
5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힘든 일도 잘 풀릴 것이다.  
64년생: 아직은 불리하니 내세지 말고 추이를 지켜봐라.  
76년생: 외부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88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순회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뱀띠**  
53년생: 지금은 상황이 불리한 것 같으나 과정일 뿐이다.  
65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정신적인 의지에 의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77년생: 광경지로 인해 신념을 잃어 생기는 운이다.  
89년생: 손 소리지르면 귀를 기울여라. 말 속의 해답이 있어.

**▷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없으니 빠른 기다려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니 사람을 잘 상대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지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양띠**  
55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해봤자 결실을 맺지 못하니 변화를 가져라.  
67년생: 작은 일에 더 신경써라.  
79년생: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져라.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원숭이띠**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으며 행운이 따르는 운이다.  
68년생: 과욕은 주의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볼 수 있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라. 일이 생기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93년생: 원형은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말이 없겠다.

**▷개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으며 기쁜 일이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인정적인 운이다.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처음에 손해본 보편 후에 알게 되니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운.  
59년생: 과음, 과식은 삼가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71년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운이다.  
83년생: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불리하니 차분하게 생각하라.